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오늘 강연에서는 내가 Stephen Haggard 교수(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와 공동 집필하여 올해 초에 발간한 ‘*Witness the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 책은 북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가 한번은 중국에서, 다른 한 번은 한국에서 실시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한국에 와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2005년에 중국에서 실시되었던 첫 번째 설문조사는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던 당시의 여건으로 인해, 조사의 질은 현대의 사회과학적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당시 설문조사의 문제는,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두 번째 설문조사는 법률적 여건이 훨씬 더 튼튼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많은 질문과 한층 더 실감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가 앞서 중국에서 있었던 조사와 잘 연결이 되었고, 또 두 조사의 내용이 서로 보강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오늘 강연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결과의 대부분은 사실상 한국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조사에서 나온 것들이다.

북한 난민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난민에 대한 관심이며, 그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북한 내부여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오늘 강연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북한 난민, 그들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그들이 북한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 글은 2011년 6월 29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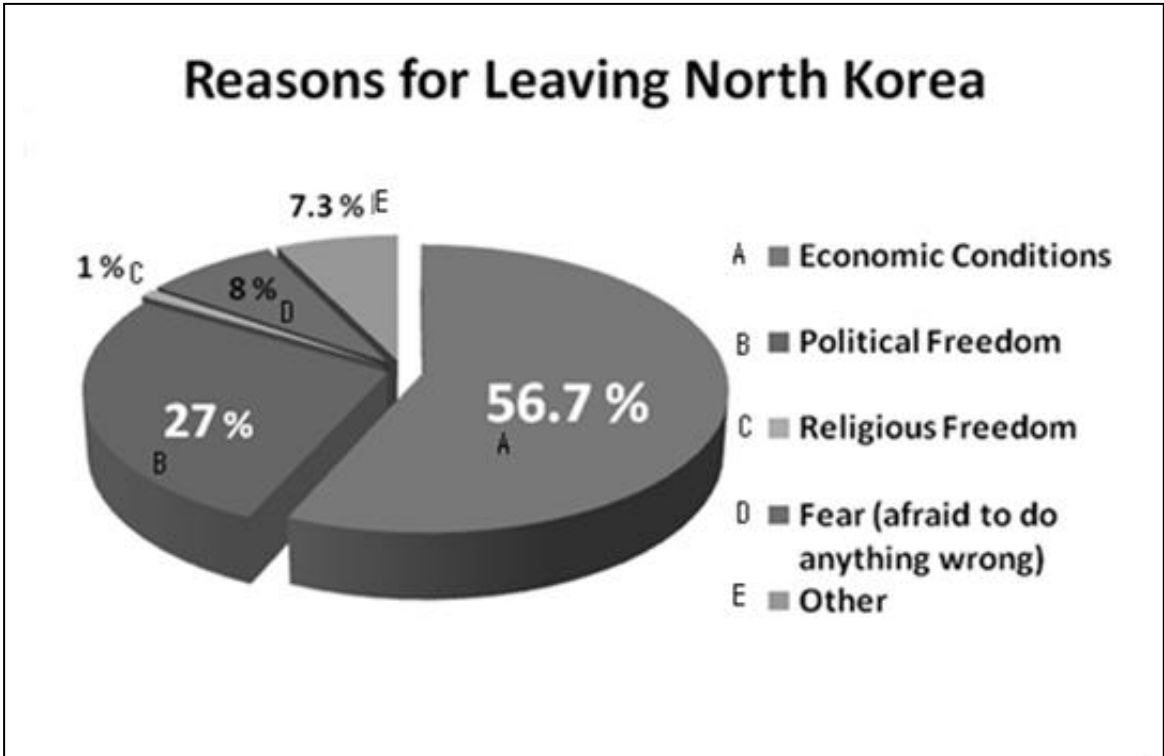
두 설문조사에서 표본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인적구조에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 시행된 조사에서는 남녀의 성비가 대략 동등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현재 한국에 정착한 난민(탈북자) 인구 중에 여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렀지만,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한창 일할 수 있는 30~40대 연령층이었다. 지리적으로, 응답자들은 함경남북도 출신이 우세한 가운데 북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탈북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다.

두 조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던 부분 중 하나는 교육수준이다.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의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였다. 중국에서 시행된 조사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이 조사에서 당면했던 기본적인 방법론적 이슈 중 하나는, 우리가 난민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응답자들이 자신의 학력을 과장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고 대답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에 대해서 주장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탈북자 자신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충격적인 점은, 있어야 할 세대간의 사회적·경제적 이동성이 북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자식도 농부이다. 아버지가 노동자였으면 자식 역시 노동자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약간의 상향 움직임이 있었고, 북한 주민 전체가 부모 세대에 비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는 추세이지만, 사회적·경제적 이동성이나 직업적 이동성은 사실상 매우 경미하다.

우리는 두 설문조사에서 북한 난민들에게 북한을 떠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중국에서 실시된 조사의 경우, 그들은 압도적으로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에서 실시된 조사의 경우는 다수가 경제적 이유를 든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표본응답자의 1/4 이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고 응답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우리가 중국에서 조사를 진행했을 때 공동연구자들 중 한 명이 심리학자였다. 그래서 응답자들의 심리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계된 질문들이 많았다. 임상적 배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절반 또는 그 이상에게 아마 역경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진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심리학자들과 의학박사들이 편찬한 임상문헌에서는, 북한 난민들 사이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과 중국(그들이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거치는 곳이다)에서 겪었던 일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의 기근이 여전히 북한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약 1/3이 기근 당시에 가족이 죽거나, 가족과 헤어졌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알아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매우 많은 응답자들이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 국제적인 식량원조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대다수는 개인적으로 식량원조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식량의 대부분이 군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갔다고 믿는다. 이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응답자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알았으나 자신은 수혜자라고 믿지 않는 그룹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하게 의기소침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버림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하며, 심리상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느낀다(통계적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감옥에 감금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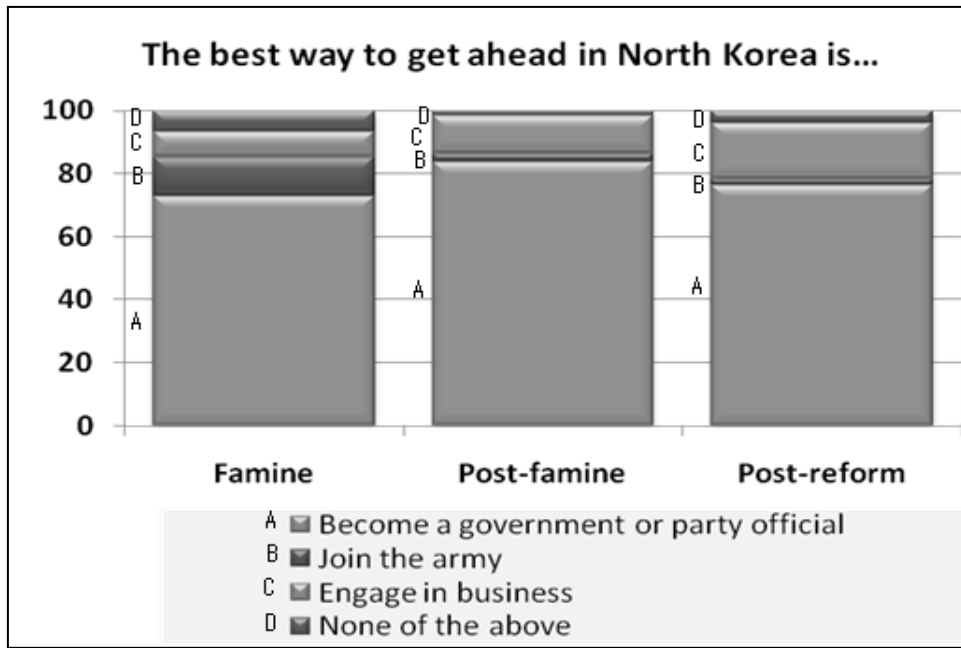
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난민들이 관심을 끄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 창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북한 내에 있는 개개인들에 대해서 시간적 추적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응답자들을 시기별로 계층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2> 및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떠난 시기에 따라 응답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기근 시기(~1998년), 기근 이후 시기(1999~2002년), 개혁 이후 시기(2003년~)로 정했다. 각 그룹은 전체 표본 응답자들의 1/3 정도로 대략 비슷하다.

<그림 2>



<그림 3>



북한에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애석하게도,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북한에서 그다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으며 최근에는 그것마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림 2>에서 충격적인 것은,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부정부패나 범죄행위라는 대답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군대는 출세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그림 3 참조).

내가 이러한 정보를 워싱턴에서 발표하자, 사람들은 “잠깐,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지 않는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나는 “선군정치가 장군에게는 매우 좋을지 모르겠지만, 징집병이 출세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대답했다. <그림 3>에서 놀라운 점은 여전히 많은 응답자들이 당과 정부를 출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앞의 두 결과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응답자들을 나누어, 북한에 있을 당시 정부나 당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졌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부패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또한 직장에서 사상주입교육에 쏟는 시간도 점점 늘어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앙당국이 북한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고, 국가와 당 간부들의 사상적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성장산업이며,

여전히 국가가 출세의 지름길로 남아 있다는 근본적인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으나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경제활동을 범죄시 하여 이에 가하는 법적 제재 수준이다. 북한의 법규가 바뀌어 경제범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북한에서 엘리트층에 속하지 않는 전형적인 일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법규들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위반하게 되어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한 주민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 경찰은 범죄자의 체포·구금에 관한 특별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금시설의 환경은 끔찍할 정도이다. 이러한 것이 뇌물갈취의 완벽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 경찰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찾아가 체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학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자신과 가족이 그러한 시스템에 얽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꺼이 뇌물을 주고 싶어 한다. 간단히 말해, 북한의 형벌시스템의 역할이 정치적 억압의 집행이라는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발판이 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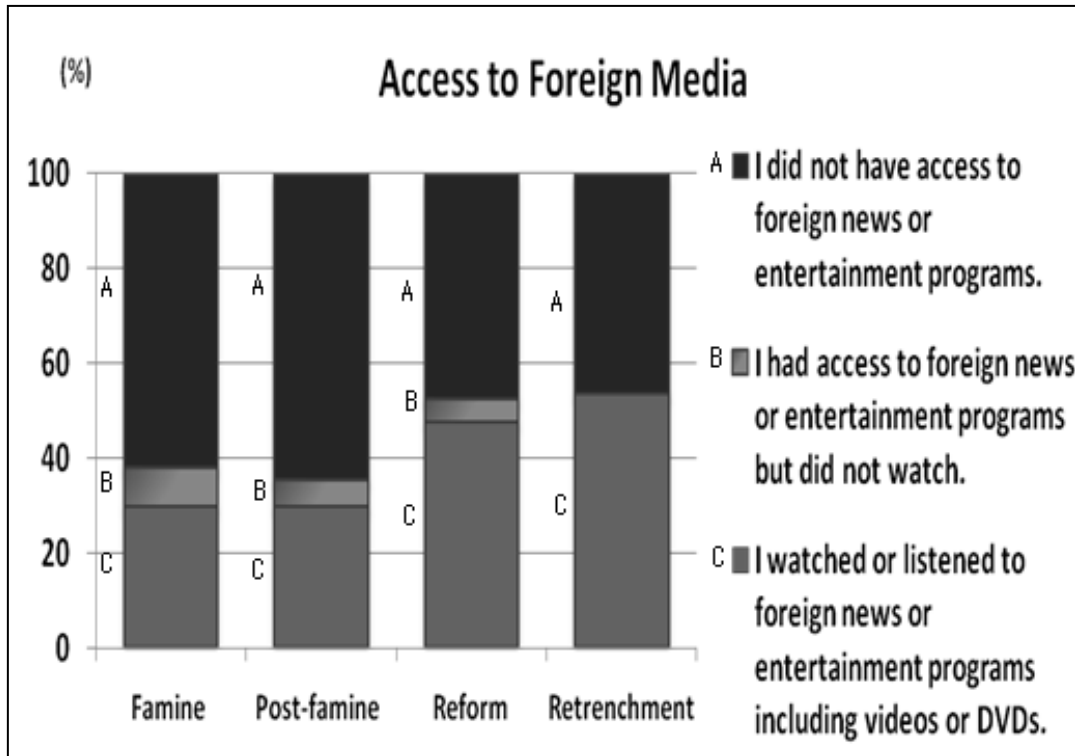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주민들에게, 투옥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의 정식 절차나 재판 같은 것을 받았었는지 질문하였더니 응답자의 12%만이 받았다고 대답했다. 북한에는 실제로 4단계의 형벌 시설이 있다. 즉, 경범죄유치장, 중범죄교도소, 정치범수용소, 그리고 이른바 노동교화소가 그것이다. 노동교화소는 1990년대에 기근을 겪고 난 후 생긴 새로운 형태로써, 실제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는 수용시설이다. 이 노동교화소에는 많은 경제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교화소, 유치장, 교도소,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의 순으로 학대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찰해 보니 실제로 그랬다. 정말 충격적인 점은 학대행위의 증가하는 정도가 완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교화소와 유치장에 구금 또는 투옥되는 기간이 정치범 강제수용소에서보다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교화소에 구금되는 사람의 일반적인 구금기간이 수 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학대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높다(그림 4 참조). 북한의 수용시스템 내에는 이와 같은 학대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그것은 열악한 정치범수용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4>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인 외국대중매체에 대한 접촉 및 이의 소비 증가추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림 5>는 외국 대중매체에 접촉하는 사람들과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외부소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것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소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모든 문제가 적대적인 외세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는 북한 정권을 북한 주민들은 점점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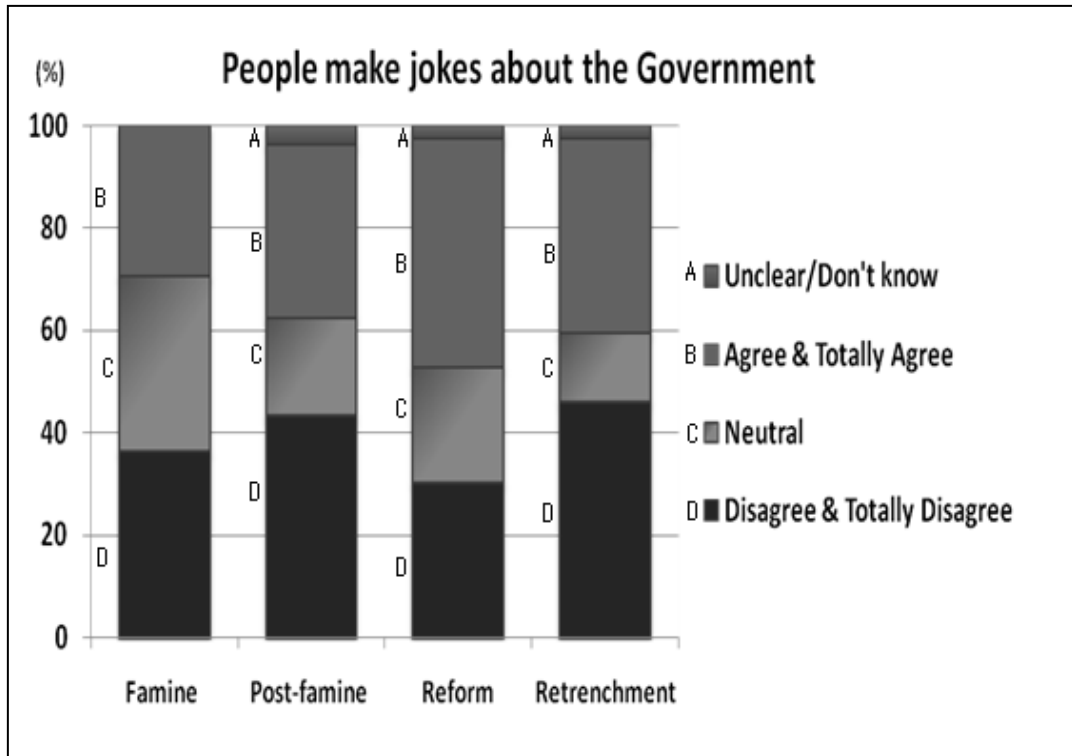
<그림 5>



우리는 설문조사에서 정치인류학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을 하였다. 질문항목은 “북한에 있을 때 친구들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 농담을 한 적이 있는가?”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는가?” “정부와 관련된 농담을 한 적이 있는가?” “정부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농담을 한 적이 있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있는가?” “조직적으로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가?” 라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농담에서 시작하여 북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조직화하는 사람들에 관한 질문까지 했다. 설문결과에서 놀라웠던 점은 스스로 난민대열을 선택한 사람들(이들은 자기 발로 난민대열에 들어선 사람들로서, 당연히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사이에서조차 북한 정부에 대한 농담을 한 경우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6>은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6>



우리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은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대중들의 불만을 일종의 건설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연결해주는 시민사회단체가 완전히 실종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곳이 바로 시장이며, 경제적 이슈가 정치이슈와 만나는 곳이다. 우리는 시장신드롬이라 불리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북한 정권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시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는 북한 정권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제개혁을 수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시장활동에 참여해 보았던 사람들이 정치적 동기로 탈북할 개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체포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 더 많았다. 그들은 이번 조사대상 중의 일반적인 북한주민들보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주위의 동료들과 함께 나눌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시장은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부족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일 뿐만 아니라, 정치조직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 소통의 반(半)자치구역으로써 떠오르고 있다. 평양 주재 영국대사로 있었던 John Everard는 북한에서 시장을 방문하는 습관이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한국어를 매우 잘 구사했다. 그는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다. 최근에 누군가가 John에게 “사람들이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라고 답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방법론적인 이슈에 대해 언급한 다음 정책적인 부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터뷰했던 북한 난민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북한을 떠난 것은 아마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견해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에 대한 완전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다.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견해가 대표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통계학 특성이나 삶의 경험 등 규명할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고려하였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개별 특성들을 통계학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시각이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명제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문제들을 서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계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국영기업에서 일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하는 등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적 이슈들에 있어서, 나머지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해본 반사실적 추정 결과와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결과는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더 큰 차이를 보일 여지가 있다. 이는 우리가 과도하게 편중된 표본그룹을 설정하였거나, 북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표본그룹에 너무 많이 넣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표본그룹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항상 95%의 신뢰구간 범위 안에 있다. 이 조사에서 오차가 있을 여지는 분명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도출한 내용들은 상당부분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합리적으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난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북한 난민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것들은 오직 가시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 문제의 90%는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책들을 북한 내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북한 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나누어 본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목인내지는 협조가 필요한 일종의 전통외교

에서와 같이 북한 정부와의 협상이 요구되는 직접적 정책과, 북한 정부의 승인이 전혀 필요 없는 간접적 정책을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북한 내 주민들의 측면에서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외부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주민들이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북한 내에 만들기 시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북한의 진정한 비극은 북한 정권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보와 시장은 북한 정권을 제약하기 위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는 것은, 북한에 진출한 투자자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노동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지, 단순히 거의 노예수준에 다름없는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함은 아닐 것이다. 북한 난민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표 1>로 만들어 보았다. 물론 한국 역시 중요하다.

<표 1>

Human Rights Policy Matrix

Policies toward	Direct policies	Indirect policies
Resident pop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icial dialogue • Penal system • Humanitarian relief • POWs/abductees • Family unification • Nonofficial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 • Labor standards

<p>Refuge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criminalize exit • Free repatriates • Enable determination 	<p>U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lement NKHRA • Support asylum seeking • Refugee scholarships <p>Chi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se forced repatriation • UNHCR access
-----------------	--	--

이 책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방심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 (engagement with our eyes open)”이다. 즉, 북한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본질이나 이러한 관계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대해서 어떠한 환상도 갖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관계개선의 단계를 인도적 원조에서 시작하여, 개발지원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상업적 관계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상업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기관들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며,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상업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남중현 원장께서 언급하셨듯이, 북한은 권력승계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북한 내에 불만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는 이렇게 팽배한 대중들의 불만을 풀어낼 수 있는 시민사회가 없거나, 적어도 우리가 시민사회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북한에는 폴란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자유노조연대 (Solidarity)나 천주교회가 없다.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던 시민포럼(Civic Forum) 같은 것도 없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Marcos 정권에 대항하는 합법적 반대운동과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Cardinal Sin 대주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 없다. 우리는 북한에 이러한 기구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구들이 북한에 있기를 바라지만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조직화된 저항보다는 사회학자인 James C. Scott이 또 다른 맥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상 속에서의 저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실제로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국가와 최대

한 얽히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 정권은 범죄 및 형사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시장을 개인의 자율과 자유의 지역으로 본다. 그리고 외부인으로서 우리는 시장을 북한 내부의 기구로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인도적·사회적 관심사들을 폭넓게 다루기 위함이기도 하다. 결국, 마르크스주의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는 모순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북한 정권을 제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체제가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없으며, 이러한 체제가 온갖 형태의 엄청난 고통을 북한 주민들에게 안겨 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능력이나 메커니즘이 북한 체제 내에는 전혀 없다는 점이 나에게서는 실로 엄청난 비극으로 보인다.

질의 · 응답

질문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을 미국 및 한국의 군사공격에 대한 완충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중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이 중국 안보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겠는가?

답변 이는 분명히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나는 귀하의 근본적인 전제는 옳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보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를 선호하며, 우애적인 사회주의 동맹국을 자국 국경에 완충지대로 두고 싶어한다. 나는 그 외에 중국 또는 최소한 중국 내 일부 부류들은 북한을 중국과 미국/인도와의 대립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유용한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북한을 통해서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과 핵무기나 미사일에 관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지정학적 양대 경쟁국인 미국과 인도의 속을 썩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이 북한을 곁에 두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UN제재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한국이, 북한은 정말로 동북아

시아 지역에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 활동은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들 양국의 잠재적 핵 역량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일 것이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핵 역량을 키운다면, 대만이라고 핵 역량을 왜 키우지 않겠는가? 이 또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들 간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단의 부유한 기술선진국들을 진정한 군비경쟁에 돌입시킬 잠재력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도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일이다.

중국에서의 내 경험으로 볼 때, 중국 내의 의사결정은 매우 수직적이며 세대 간의 요소가 매우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보통 나의 아버지 세대의 중국인들은 한국전쟁을 겪었고, 북한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어한다. 그리고 보통 내 나이 및 젊은 세대의 중국인들은 대부분 문화혁명 시기의 좋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북한의 개인숭배와 세습적 권력승계를 완전히 조롱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들은 중국과 한국이 더 할 나위 없이 번영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다. 만약 통일 이후 한반도 내 미군의 주둔 또는 철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중국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받아들이는 지지층이 중국 내에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계층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는 정책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 주체사상의 공식적 이념(official ideology)에 대한 개념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귀하가 분석한 것이 있는가?

답변 간단하게 대답하면 “no”이다. 우리는 난민들에게 주체사상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쪽 모두의 설문조사에서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우리는 이 질문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하였다. 즉, 지금 현재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의 상태는 무엇인지, 그들이 북한을 떠나기 전에 바랐던 한반도의 상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친지들이 앞으로 원하는 한반도의 상태는 무엇인지가 바로 그 세가지 질문이다. 우리가 얻은 응답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었으며, 통일을 바라는 정서가 압도적이었다. 북한이 독립국가로 존속하되 정권은 바뀌어야 한다는 제3의 방식에 대한 선호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응답자

들에게 예상될 수 있듯이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서는 사실상 이들에게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이 주체사상의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은 현재의 북한 국가이념이나 북한이 독립국으로써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큰 애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물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장화나 시장활동을 억누르고자 애쓰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북한경제 또는 북한 전반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답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에 있어 엄청난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시장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시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이 1990년 말 이후부터 ‘2보 전진 1보 후퇴’와 같은 양면적 행동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대화를 이루어 잘 살고 싶어하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다.

나와 Haggard 교수가 하고 있는 다른 공동연구에서 우리는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는 300여 개의 중국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분권화되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시장부합적 방식에 따라 국경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돈을 벌지 못하면 철수한다. 북한은 이와 같이 분권화되고 시장부합적인 거래형태를 억압하거나 없애고, 그대신 이를 통합하여, 정부가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기구를 통해서 중국과 거래하도록 바꾸고 싶어한다. 나는 이러한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중국인들이 북한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인들은 북한사람들이 매우 부패하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그들의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 중국인들은 북한에 투자하여 생산을 하기보다는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들이 북한사람들에게 수출할 때에는 중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유사시 중국의 분쟁해결시스템에 의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대금결제 방식도 매우 엄격하여, 그들은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또는 물물교환방식으로 거래하기를 원한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종류의 활동을 없애고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 받는 기구를 통해 교류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러한 점이, 북한 정권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인 것으로 생각하며,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김정

일은 나이가 너무 많고 이러한 북한 시스템에 이미 너무 많이 젖어 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북한은 정부를 재조직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여 이를 굳히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이는 북한이 변화에 관심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 내부의 진정한 변화는 앞으로도 여러 해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물질적,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축소시키고 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개념은 중요했다. 햇볕정책의 목적은 내부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보다 변형되고, 인도주의적인 정권으로 변모시키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덜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권으로 변화 또는 전환시키고자 함이었다. 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을 전환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포용정책의 개념이,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단순히 ‘포용을 위한 포용’이라는 매우 다른 정책으로 표류하는 것을 보았다. 즉, 포용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였다는 말이다. 포용정책을 실시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원했던 호혜주의의 확대는 별로 없었다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한국 국민들은 한국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북한이 고맙게 생각해줄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조치는 납득할 만한 것이며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들이었으나, 북한은 이를 모순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동시에 전직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의에서 했던 약속을 부인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북한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첫째는 공짜로 주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북한에 기꺼이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북한도 보답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북한이 이를 극복하고, 남·북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수렴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Haggard 교수와 공동 저술한 또 다른 책인 *‘Engaging North Korea: the Role of Economic State Craft’*에서는 제목 그대로 경제적인 국정운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제재나 유인책이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효과가 없다는 우울한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며, 특히 지금은 권력승계가 큰 이슈이다. 외부세계가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

력은 사실상 제한적이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 한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나로서는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나 변화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질문 북한에 비즈니스 마피아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마피아의 존재가 북한 정권과 경제가 지속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가?

답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지난 15~20년간 북한의 시장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실패로 인하여 발전되었다.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잘 구상하여 시도된 하향식 개혁 때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것이 국가가 결코 시장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시장발전의 단면 중 하나는, 정부 또는 정부와 관계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국가보위부 간부의 부인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공공식량배급소 관리자가 식품시장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예이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방식들 중에 하나는, 엘리트층들 스스로가 시장에 맡겨 있거나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대해 억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9년도의 화폐개혁 당시 북한 주민들은 화폐를 몰수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외화를 구하기 위해 암시장으로 몰려들 것이다. 모두가 북한 원화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 화폐의 가치가 폭락했다. 그러자 북한 정부는 외화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많은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절대 있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대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달러를 관리하고 있어서 외화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관원들이 장군들 집에 들어가 그들의 돈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일주일도 안되어서 포기해야 했다.

북한 시장은 거의 규제되지 않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발전하여 왔는데, 북한 정권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폐개혁 이후 그 해 12월에 있었던 일들 중 하나는 평양 시내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강성대국 프로젝트(*prestige projects*)가 시멘트 부족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왜 시멘트가 부족하게 되었을까?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업은 국영기업이었지만 건축자재를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이 붕괴되자 국영건설사마저도 시멘트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핵심 국영기업들조차도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부 평양 사람들에게 분명히 깨우쳐주었을 것이다. 나는 북한에도 일종의 비즈니스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북한 경제의 개혁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김정일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호인가?

답변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사실상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이 원조를 간절히 필요로 해서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내가 보기에 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리비아 사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러시아가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시도하는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김정일이 사정이 절박해졌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다가오는 권력승계 문제도 있으므로, 북한과 자신의 후계자 양쪽 모두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래를 하고자 함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나는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이 없으며 모두 나의 추측일 뿐이다.

질문 귀하가 말했던 주민들의 불만을 북한 내부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답변 불만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 북한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꼭 선전 또는 반(反) 김정일 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지 않은 정보원으로부터 나오는 세계 소식이면 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공영뉴스는 중동에서 일어난 정치혁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리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리비아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라고 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 무슨 말을 할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경제적 협력의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 기구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시 원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기구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우리는 중앙정부의 힘을 대체할 수 있는 근원을 개발하라고 권하고 싶다. 북한 주민들의 동원을 고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인 및 기구의 자율성 확대와 정보는 상황진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 상황에 대한 북한 내부의 역동성은 지금처럼 책임감 없고 파괴적인 방식의 행위를 보이는 북한 정권의 능력에 대해 점점 더 큰 제약을 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질문 한국의 보수단체들이 선전 및 정보 전단을 풍선에 띄어 보낼 때마다 북한 정권은 매우 흥분하여 도에 지나친 선전을 한다. 귀하의 조사에서, 한국 보수단체들의 이와 같은 활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된 것이 있는가? 북한에 정보와 전단을 많이 보내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우리는 이에 대해 조사한 것이 전혀 없으며, 최근의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선전이나 정보 전단을 풍선에 띄워 보내는 활동은 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1999년이나 2003년, 2005년에 북한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활동을 접해보지 못했다. 이러한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는 대체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풍선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정치적 정교함에 매우 놀랐다. 그들은 분명히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조잡한 반(反)정권 선전물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는 이 전단지 중 하나를 복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블로그에 올려 놓았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난 60년간 한반도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나는 이 전단이 서로 다른 남북의 집단들이 그 동안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실제로 상당히 공정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김씨 일가와 그 정권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기로는, 북한 주민들을 놀라 까무러치게 만드는 것은 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한 것으로, 그의 부인이 여러 명이며 그의 자식들이 서로 다른 여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팜플렛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들은 가계보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나는 북한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이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북한 정권을 공격하는 정보보다는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정보가 북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건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이나 한국 신문이 아닌, 예컨대 단순히 London Times나 Le Monde 또는 El Paris와 같은 신문들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냥 세계 여러 지역의 물가나 날씨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반정권 선전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북한 사람들에게

게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건설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왜 이러한 단체들의 일부 활동을 불편해 하는지 이해는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요지는 이러한 활동을 통제하기보다는 내버려두는 것이 국가손익면에서 더 낫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는 민간단체들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활동인 것이다.

질문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아주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다. Obama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는 취임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몇 주가 채 되지 않아 나온 북한의 대답은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이었다. 한편 Obama 대통령이 취임했었을 때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당면한 상황이었고, 전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해결해야 했다. Obama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었으나 북한은 그 손을 뿌리쳐버렸다. 여러분이 이러한 입장에 있었다면 북한과 협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문제들로 관심을 돌렸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는 구체적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Kerry 상원의원은 Los Angeles Times에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 기사를 썼다. 그렇다. 대화는 항상 좋은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해서 손해 볼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1995년 당시와 너무 비슷하다. 1994년 10월에 미국과 북한은 합의서(제네바합의를 말함)에 서명하였으며, 다음 달인 11월에는 야당인 공화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하여 의회를 장악했다. 1996년 11월 대통령선거를 향해서 치닫던 1995~1996년 기간에 공화당은 북한이슈를 Clinton 행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공화당이 지난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고 Obama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Obama 대통령은 북한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거나 정치적 자산을 위태롭게 하기를 매우 꺼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즉 인도적 지원 같은 단순한 일마저도, 공화당이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정치상황과 미국의 정치상황, 그리고 북한의 권력승계 이슈로 인해 앞으로 수년간은 중대한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질문 귀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부패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귀하는 이러한 부패증가 추세와 북한 정권의 안정성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답변 부정부패는 일종의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지방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때문에 온전한 임금을 다 안 쥐도 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내놓는 정치적 아젠다와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대리인 및 공무원들의 지방적 이해관계가 서로 벌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북한에서 함경북도는 낙후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의 지리적 위치와 비교적 좁은 두만강의 강폭으로 인해서 북쪽의 함경도에서는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남한에 오는 난민들의 상당수가 함경북도 출신이다. 이들이 다시 함경북도로 송금한 돈이 현재 그 지역의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승인 없이 북한을 나오는 것은 불법이고, 남한으로 가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므로 난민들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한다. 내가 들은 일화에 의하면, 함경북도 공무원들은 한국으로 도망간 사람의 가족한테 가서 “당신 형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고 들었고,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돈을 나와 나눈다면 눈 감아주겠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경에서 감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함경북도로 송금하는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송금한 돈의 50%는 현재 함경북도 공무원들이 걷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강제수용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는 난민들의 가족들을 강제수용소에 보내려고 하지만, 지방 공무원들은 이러한 류의 부패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패는 이처럼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통제수단을 취약하게 만들어 중앙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벌리는 부패의 손길을 뿌리치기 위해서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앙집권화시키려 한다

는 사실이다.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앙집권화하면, 동시에 부패도 중앙집권화가 된다. 이를 위한 위원회들의 구성원을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에 대한 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 어떤 단체와 개인이 영향력이 있는지, 또 어떤 단체가 중국투자자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걷어가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질문 앞으로의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북한 사람들이 정보 및 시민사회기구들과 더 많은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재스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가? 아니면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답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당연히 다음세대 내에는 통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재스민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본질로 인해, 재스민혁명이나 동독의 붕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더 폭력적인 루마니아 혁명과 같은 가능성이 많다. 유혈사태와 거리의 총격전이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다면 엘리트층 내에서의 싸움이 주요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각종의 안보기관 및 군사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북한에서 일어날 결과로써 동독의 사례가 매우 좋다고 본다. 대규모의 폭력사태가 없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핵무기가 유출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사람이라면 동독의 경우처럼 되기를 매일 밤 기도할 것이다. 북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실제로 유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 물론 진짜 위험은 한 파벌 또는 그 이상의 파벌들이 한국이나 중국에 지원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면 정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결국 통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질문 난민들이 수용소에 있었을 때 학대를 목격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어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다.

답변 우리가 매우 염려했던 것이 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과정에서 단계적인 질문을 했다. 우리가 수감 경력자들에게, 수감 당시에 다른 수감자가 매맞는 것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100%였다. 내 추측에 한국에 있는 감옥이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감옥에 가서, 수감자들에게 다른 수감자가 매맞는 것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세계 어느 감옥이든 가서 수감자가 매맞는 것을 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 난민들에게 공개처형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충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50% 정도로 훨씬 적은 수치였다.

우리는 이러한 류의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에 관한 질문을 한 후, 난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임신 중이었던 여성들에게 행한 강제낙태나 영아살해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중국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수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훨씬 낮은 6%였다. 남한에서 조사했을 때에는 직접 알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7%였다. 그래서 학대를 단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조사가 그럴듯하게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두 조사에서 얻은 수치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영아살해는 북한의 법률제도에서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가 현재 법령에 범죄라고 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행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의 법령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 중 하나이다. 이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암시적으로 말해준다. 북한 법령을 보면 별것들이 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귀금속을 파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귀금속을 팔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바뀐 법령 중에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 중 하나는, 북한에서 호텔과 식당에서 매춘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불법화하였고, 그 후 이것은 사형에 처할만한 중범죄로 크게 바뀌었고, 현재 북한에서는 매춘을 알선하게 되는 것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일 수도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